

朝鮮前期 韓日兩國 文人の 詩文唱和에 대하여*

金 聲 振**

차 례

- | | |
|-----------------------------|----------------------------|
| I. 序 論 | 2. 宋希璟의 『日本行錄』과 正祐의 ‘朝鮮行錄’ |
| II. 朝鮮前期 韓日文人間 詩文唱和의 周邊 | |
| III. 朝鮮前期 韓日兩國 文士의 詩文唱和의 實際 | 3. 松泉幽處詩卷과 杏林亭詩軸 |
| 1. 朝鮮前期 詩文唱和의 不傳記錄 | IV. 結 論 |

I. 序 論

朝鮮時代の 韓日關係라 하면 으레히 朝鮮通信使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이 朝鮮通信使라는 용어는 ‘朝鮮에서 파견된 通信使’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리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적으로도 조선 후기 또는 日本의 江戸時代로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있다.¹⁾ 朝鮮通信使라는 용어 자체가 이와같은 한일 양국 학계의 흐름을

* 이 논문은 1999년도 財團法人 日韓文化交流基金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논문임.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1) 李鉉淙은 『朝鮮前期對日交涉史研究』(韓國研究叢書 第10輯, 韓國研究院, 1964)에서

그대로 반영한다. ‘朝鮮에서 派遣된 通信使’가 ‘朝鮮通信使’라면 ‘日本에서 조선에 파견된 通信使’는 日本通信使라고 칭해져야 할 것이나, 조선후기에는 조선에서 日本으로의 일방통행식 사신파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日本通信使라는 용어는 쓰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²⁾ 요컨대 朝鮮時代의 한일양국간 교류, 특히 문학적 교류에 관한 연구가 조선후기에만 편중되어 있고, 조선전기에 한반도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양국문인간의 詩文唱和는 연구자의 관심밖으로 밀려나 있다는 것이다. 당시에 조선에 파견되었던 日本使僧과 접촉했던 조선측 문인들의 창화시문은 물론, 이른바 ‘朝鮮通信使’에 해당하는 室町時代 日本使僧의 詩文唱和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공히 논의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점을 감안하여, 조선전기에 양국문사간에 이루어진 시문창화를 주된 대상으로 해서 그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麗末鮮初에는 朝鮮後期와는 달리 한일 양국의 교호적인 사신파견이 이루어졌다. 조선후기처럼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빈번하게 사신왕래가 이루어졌다. 조선에서 日本으로의 통신사 파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일본에서 조선으로 사신을 파견하는 것이 주된 흐름이었다. 파견의 주체도 幕府와 對馬島主는 물론이고 사찰의 주지나 상인까지 망라되었다. 조선정부는 이처럼 日本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파견된 사신들을 접대하느라 적지않은 곤욕을 치루어야만 했다. 예를 들어 世宗21년(1439)의 경우 일본 각지에서 파견된 사신이 4월에 이미 1,300여인에 달했고, 世祖1年(1455)에는 12월 8일 현재 6,116명에 이

朝鮮時代に 朝鮮에서 日本에 派遣된 使臣을 모두 ‘通信使’라고 하고 있다. 이에 비해 三宅英利는 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된 사신의 칭호와 파견의 목적등을 들어 1397년의 朴尊之와 1408년의 朴和의 경우는 通信使의 선행적 형태로, 1429년의 己酉通信使 1439년의 己未通信使 1443년의 癸亥通信使 등은 通信使의 초기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朝鮮通信使라 하면 ‘조선후기’(또는 江戸時代)에 조선에서 日本에 派遣된 使臣’이라는 전제하에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2) 『朝鮮王朝實錄』이나 문집등을 보면 조선에서 日本에 파견된 사신 이른바 ‘朝鮮通信使’를 ‘日本通信使’ ‘日本國通信使’ 아니면 그냥 ‘通信使’라고 칭하고 있다. 사신 파견의 목적을 반영하여 ‘回禮使’ ‘通信官’ ‘報聘’ ‘客人護送官’ 등의 다양한 칭호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日本에 보내는 사신을 日本通信使 또는 통신사로 부르는 것이 조선시대 전반의 일반적 흐름이었던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 파견되어 온 사신을 통신사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르렀다.³⁾ 당시에 室町幕府에서 조선에 파견된 日本國王使는 규모가 일정하지는 않았으나, 세종 6년에 파견되었던 圭壽 일행의 경우 16척의 배에 인원이 523명에 달했다.⁴⁾ 조선 후기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되었던 通信使와 같은 규모의 대규모 사절단이 조선전기에는 일본에서 조선으로 파견되기도 했던 것이다.

사신의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문인간의 시문창화도 많이 이루어졌다. 조선전기에도 일본에서 양국문인간의 시문창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는 일본에서 조선으로의 사신파견이 압도적이었던 때문으로 시문창화의 주된 공간 역시 한반도였다. 일본의 경우, 10년동안 계속되었던 應仁의 亂(1467~1477)등으로 많은 典籍들이 소실된 때문인지 室町時代に 韓日兩國 文人들이 주고받았던 詩文唱和의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韓日間の 문학적 교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졌던 詩文唱和를 연구한 村井章介 역시 조선에 갔던 日本人에 의한 唱和의 예는 日本의 사료에서는 찾아지지 않고, 『朝鮮王朝實錄』에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⁵⁾ 그러나 『朝鮮王朝實錄』에도 知融과 元叔의 시 이외에는 이렇다 할 자료가 없다. 그 대신 日本使僧과 시문을 주고받았던 조선문인들의 창화시문은 『朝鮮王朝實錄』과 여러 문집에 적지않게 남아있다.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조선 후기 이상으로 韓日兩國의 문학적 교섭이 활발했던 조선전기의 양국문인간 시문창화의 자취를 탐색해보는 데 있다. 이러한 성격의 대표적인 자료인 宋希環의 『日本行錄』은 우연히 丁酉再亂 당시 日本에서 재발견되었었다. 그런 연유도 있고 해서, 이름만 전해질 뿐 散逸된 여러 자료들 역시 日本에 전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조선전기에 이루어진 한일양국의 문학적 교섭에 관한 자료는 오히려 한국쪽에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기에 이루어진 한일양국간 문학적 교섭의 실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3) 『世宗莊憲大王實錄』卷85 21年 4月 17日 甲午日條 [이후로는 世宗085, 21/04/17 (甲午)식으로 표시하고, 원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해당부분만을 “ ”로 묶어 인용하도록 한다.] 와 세조002, 01/12/08(己酉)

4) 世宗023, 06/02/23(己酉).

5) 村井章介, 『東アジア往還一漢詩と外交』(朝日新聞社, 1995), p.36

이름만 전해질 뿐 산일된 여러 자료들의 발굴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들 부전기록의 성격에 대한 개괄적인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선전기의 양국간 문학적 교섭에 대한 본격적 연구의 기초작업으로써, 조선전기의 양국간 시문창화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또 현전하는 기록들에 대한 다각적인 비교검토를 통해 관련 부전기록의 성격을 구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들 기록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만으로도, 본 연구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송회경의 『日本行錄』은 조선전기의 한일양국간 시문창화를 연구함에 있어 필수불가결의 자료이고, 또 본 연구에서 탐색의 대상으로 삼은 正祐의 이른바 『朝鮮行錄』에 상응하는 자료인 때문으로, 함께 다루기로 한다.

II. 朝鮮前期 韓日文人間 詩文唱和의 周邊

조선전기에는 日本幕府에서 조선에 보내는 國王使는 물론이고 각지의 호족과 상인들이 보내는 사신들이 줄을 이었다. 世祖 1년(1419) 12월 8일, 예조는 事目을 올려 日本 각지에서 보내오는 使客을 支持하는 원칙을 정할 것을 청하였다. 이해에 日本에서 파견된 사객이 무려 6,116명에 달해 국가제정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었다.⁶⁾ 이 해에는 이후에도 9일에 管提, 12일에 肥前州의 田平寓鐵・彈正小弼弘・藤源定泉, 15일에 五島宇久守 源勝 등이 각각 사자를 보내어 토산물을 헌상했다. 한 해동안 거의 7천명의 사객이 日本에서 조선에 파견되었던 것이다. 高橋公明은 이를 ‘朝鮮遣使붐’이라고 하고 격렬한 권력투쟁을 거쳐 왕위에 오른 세조가 자신의 왕권 과시를 위해 이러한 현상을 유도했다고 보았다.⁷⁾ 그와 같은 측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면 세종21년을 전후

6) 世祖 002, 01/12/08(己酉), “是歲 日本國諸處使送倭人六千一百十六……民人受弊 國家糜費亦不貲”

7) 高橋公明; 「朝鮮遣使ブームと世祖の王權」, 『日本前近代の國家と對外關係』(田中健夫編, 吉川弘文館, 1987) pp.342~369.

해서 한 달동안 日本에서 파견되었던 수천명의 사객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세종21년 4월 17일, 세종은 日本 각지에서 파견한 사객을 어떻게 접대할 것인가에 대해 下問하였는데, 이에 대해 禮曹判官 閔義生은 “근년 이래로 倭使가 자주 와서 금년에는 사인이 무려 1천 3백여인이나 되므로 접대하기에 곤란합니다.”고 대답하였다.⁸⁾ 그로부터 한 달후인 5월 11日, 兪知中樞院事 李藝가 啓를 올려, 對馬島의 宗貞盛이 ‘한달 동안에 보내는 사람이 거의 수천명에 달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청하였다.⁹⁾ 宗貞盛이 보낸 수천명을 전부 사객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閔義生과 李藝의 말로 보아 이때에도 세조조 못지않게 조선에 사신을 보내는 것이 붐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日本으로부터의 사객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조선정부의 재정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백성들 특히 경상도 지역의 백성들의 불만 역시 높아지게 되었다. 세조12년에 있었던 李穡의 필화 사건은 이같은 당시의 분위기를 반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日本國 管提 源義就의 사자가 경상도 함창에 이르렀을 때 軍籍使從事官 李穡이 시를 지어 주었는데, 그 시 가운데 경멸하는 말이 있다 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건을 말한다. 사헌부에서는 李穡을 推鞠할 것을 청하였으나 추국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승정원으로 하여금 李穡에게 馳書하여 이후로 객인과 만나서 贈詩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였다.¹⁰⁾ 성종10년에 예조에서 올린 日本國通信使의 事目 가운데 ‘환쓰기와 말타기, 廻詠은 경솔하게 그들에게 보여줄 수 없으니 반드시 强請하기를 기다린 뒤에야 하도록 할 것’¹¹⁾이라는 조항이 있게 된 것은 물론 국가의 위신을 고려한 때문이었지만, 이같은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상도 함창의 객사에서의 이같은 詩文贈與는 日本使僧이 조선에 파견되어 체류하고 있는 동안 자주 조선문인들과 시문을 주고받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8) 世宗 085, 21/04/17(甲午), “比年以來 倭使頻繁 今年使人 無慮一千三百餘人 難以支待”

9) 世宗 085 21/05/11(戊午), “一月之內所遣 幾至數千”

10) 世祖 038, 12/01/02(乙巳)

11) 成宗 102, 10/03/26(辛巳), “禮曹啓 日本國通信使 賁去事目……射御廻詠不可輕易示人 必待强請然後 爲之”

실제로 조선에 파견되었던 일본사승들은 곧잘 조선 조정애 시를 올리거나 조선문인들이 자신들을 위해 시문을 지어주기를 청하곤 하였다. 태종대의 日本使僧 雪菴, 세종대의 正祐·良倪·知融, 세조대의 道源, 성종대의 元肅과 元叔, 중종대의 太原東堂·彌中·月江 등은 각기 조선조정에 시를 바친 기록이 있고, 이 가운데 良倪·知融·元肅·元叔 등이 바친 시는 『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특히 正祐는 세종1년(1419)에 九州節度使의 사신으로 와서는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청하여 이를 허락받았다. 正祐는 흥천사에 머무르면서 산천승지를 유람하였는데, 후에 그가 한국할 때 지어바쳤다는 行錄이란 아마도 일년동안 조선에 머무르면서 지은 제영과 창화시문이었을 것이다. 『朝鮮王朝實錄』에서는 이례적으로 正祐에 대해 ‘시도 좀 알고 글씨도 쓸 줄 안다’고 평하고 있는데¹²⁾, 그가 지었다는 行錄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正祐는 행록을 지어 바치면서 조선문사들이 자신을 전송하는 시를 지어주기를 청하였으며, 세종은 이에 문신들에게 명하여 송시를 지어주게 하였다.¹³⁾

正祐와 마찬가지로 日本使僧들은 종종 筭路에 부탁하여 문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시문을 지어주게 할 것을 청하곤 하였다. 그런 연유도 있고 해서 조선조정에서는 日本使僧과 일본으로 파견되는 通信使의 작시능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 심지어 통신사의 군관을 선발함에 있어서도 작시능력을 고려할 정도였다. “오늘의 揀選에서는 한갓 武才만으로만 취하지 말고 모름지기 詞章을 잘하는 자를 택하여 아뢰도록 하라”¹⁴⁾는 성종의 왕명은 그같은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에 앞서, 성종6년(1475)에 日本에 통신사를 파견하기로 하고 正使 副使 書狀官을 정했으나 영의정과 좌의정이 통신부사와 서장관을 교체할 것을 청하였다. 부사인 李則은 오른팔이 부자유스러워 일본인들에게 혼잡할 수 있고 書狀官 裴浴沫은 시를 잘 짓지 못한다는 세평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正使 副使 書狀官을 비록 모두 시인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반드시 시를 잘 짓는 사람이 있어야만 대국의 사신이라고 할 수 있다

12) 世宗 004, 01/06/01(甲戌), “祐稍能詩善書”

13) 世宗 007, 02/閏1/06(乙亥), “祐自述行錄以進 求文士隨行詩 命文臣製贈”

14) 成宗 100, 10/01/19(丙子), “上曰 今日之選 不可徒取武才 須擇善爲詞章者 以啓”

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日本人들이 만일 시를 요구하는데, 이에 酬應하지 못한다면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¹⁵⁾ 이에 따라 副使는 李命崇, 書狀官은 蔡壽로 교체되었다. 일본측의 시문창화 요구에 수응할 수 있는 문학적 역량을 고려하여 서장관을 교체하기도 했던 것이다.

성종18년(1487)에 예조에서 사승 元驚의 贈行詩에 대한 和章과 陳祖田의 杏林亭詩에 대한 序後跋을 홍문관에서 짓게 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대해 성종은 “문신 가운데 堂上官 堂下官 할 것 없이 시문에 능한 자를 골라서 지어주게 할 것을 명하였다. 元驚이 시문을 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재를 보려고 하는 것이므로 경솔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¹⁶⁾ 앞서 언급한 바 있었던 日本國通信使事目에 ‘題詠은 경솔하게 그들에게 보여줄 수 없으니 반드시 强請하기를 기다린 뒤에서 하도록 할 것’이라는 항목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비슷한 몇 가지의 예가 있다. 중종17년(1522) 2월에 日本國王使 大原東堂이 오자 좌의정 남곤 등은 다음과 같이 啓言하였다.

이번의 日本使臣 大原東堂은 반드시 가려서 보낸 것이어서 평상시의 國王使의 예가 아닐 것이고 그가 요구하는 것도 반드시 많은 것입니다. 또한 전일에 더러 글을 잘하는 사람이 오기도 했었으니, 마땅히 辭令을 잘하고 국가의 체통을 아는 사람을 가려 묻는 대로 응답해서 먼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直提學 蘇世讓이 가당합니다.¹⁷⁾

요구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 시문의 창화를 말하는 것으로, 접반을 위한 宣慰使의 선정에 있어 무엇보다 문장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大原東堂은 과연 상경하는 도중에 宣慰使 蘇世讓과 시문창화를 많이 하였는지, 한달 뒤인 3월에 大原東堂과 함께 입경한 蘇世讓은 大原東堂이 지은

15) 成宗 057, 06/07/16(癸亥), “使副使及書狀官 雖未盡得詩人 一人必須能詩者 可名爲大國使 而彼之索詩 如不能應 可羞也”

16) 成宗 204, 18/06/09(丁丑), “此人求詩文者 欲觀我國之人材耳 不可草率 文臣堂上及堂下官 擇能詩文者製給”

17) 中宗 044, 17/02/14(辛卯), “南袞等啓曰 今次日本使臣大原東堂 必揀擇而遣之 非常時國王使臣例也 其所求必多 且前或有能文者來 當擇其善於辭令 知國體者 隨問隨答 勿令遠人缺望 直提學蘇世讓可當”

시를 입계하였다. 이에 증중은 별도로 명하여 大原東堂의 시를 간수하게 하고 그에 대한 蘇世讓의 창화시를 등서해서 大內로 들이게 하였다. 그만큼 日本과의 교린에서 시문창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것이다.

증중조에 이어 명종조와 선조조에서도 조선조정에서는 일본사승과의 시문 창화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했다. 명종17년(1562)에 예조에서는 日本國王使의 접반을 위한 선위사를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啓를 올렸다.

지금 日本國王의 사신으로 문장에 능한 자가 온다고 합니다. 宣慰使 李翎은 인격이 있고 재주가 주밀하니 사신 응대에 넉넉하지 못한 것은 없으나 만약 객사가 시문을 수창하기를 좋아하여 시문을 많이 짓게 하면 미처 應酬하지 못하여 궁색하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前漢吏學官 權應仁은 詞章에 능하여 그와 비견한 사람이 드물니다. 지금 本道에 있으니 觀察使에게 移文하여 억말을 타고 宣慰使 일행을 따라가서 좌우에 있으면서 다급할 때에 도와 주게 하소서.¹⁸⁾

大原東堂의 예도 있고 해서 日本使僉을 접반하는 宣慰使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시문의 창화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터이나, 문장에 능한 자가 사신으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오로지 선위사의 시문창화를 도와줄 문인을 차출해서 대응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大原東堂이 入京함에 따라 그를 위한 잔치를 거행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조판서 洪淑과 예조참판 韓效元은 大原東堂등이 觀火 觀射 및 금강산 관광을 청할 것이므로 미리 의논해서 처리할 것을 청하였다.¹⁹⁾ 명승의 유람과 시문창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나, 사신으로 파견된 사승들 역시 명승의 유람에 큰 관심을 보였고 또한 조선에 체류하는 동안 명승을 유람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洪淑과 韓效元이 大原東堂의 入侍에 앞서 이들이 금강산관광을 청할 것이라고 豫斷했던 것처럼, 조선조정의 일각에서는 일본의

18) 明宗 028 17/11/06(丙戌), “禮曹啓曰 今聞日本國王使臣 能文者出來 宣慰使李翎 人器才調 未必不優於應接 然客使若喜唱酬 述作過多 則有窮急之弊 前漢李學亡權應仁 善爲詞章 罕有其儔 今在本道 請移文觀察使 使之乘駟馳赴宣慰使之行 給事左右 以爲救急之資”

19) 中宗 044, 17/03/24(辛未), “禮曹判書洪淑參判韓效元等啓曰 日本國使臣宴饗 明日當行 東堂等必於宴饗言其求諒之事 其求諒不過觀火觀射觀金剛山”

사신들이 사명을 빙자하여 유람을 오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해년 여름에 일본국이 사신을 보내고 조회하는데 沙門祐公이 따라왔으니, 대개 사명을 띠고 온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명산을 구경하려는 것이다. 그 사람 생김새가 단아하고 깨끗하여 道氣가 있고 글씨도 잘 쓰며 시도 잘 지어서 모두 볼 만하였다. …그해 가을에 역마를 타고 가서 금강산을 찾아가게 하여 마음껏 구경하고 보는 데로 기록하여 글로 만들었으니 모두 만 마디나 된다.²⁰⁾

일부 日本使僧은 사명을 띠고 와서 사명보다 유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글을 쓴 鄭以諤의 생몰년(1354-1434)을 감안할 때 己亥年은 세종1년(1419)이 된다. 세종대에는 일본 각지에서 사신의 이름으로 조선을 찾은 인원이 연간 수천인에 달하였는데, 그중에는 종종 沙門祐公처럼 사행을 따라 와서 조선의 명산을 유람하고 그 여정과 감흥을 시문으로 남기는 일도 있었던 것이다.

중종18년(1523)에 日本國王使로 조선에 온 一鶚東堂은 오랫동안 여관에 머물러 있으니 무료하다 하여 예조를 통해 유람할 수 있게 되길 청하였다. 이에 따라 押宴官인 좌의정 이유청과 예조판서 尹殷輔 등이 '전례에 따라 유람을 허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으므로, 중종은 전교를 내려 그렇게 하게 했다.²¹⁾ '전례에 따라'라는 구절로 보아, 日本使僧들이 일부러 틈을 내어 산천승지를 유람하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세종1년(1419)에 九州節度使의 사신으로 왔던 正祐만 하더라도 승지를 유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선조정에 청해서 허락을 받으면서 안강갯촌 말과 의복을 받은 일이 있다. 正祐는 興天寺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천승지를 유람하며 아울러 조선문인들과 시문을 창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다음해에 日本國王使로 온 亮倪와 함께 귀국에 앞서 참예한 조회에서 지어바쳐올렸다는 행록은 아마도 이때의 기행 시문일 것이다. 이를테면 宋希璟의 『日本行錄』에 상대되는 『朝鮮行錄』인 샘인

20) 鄭以諤: 「送日本天祐上人還歸序」, 『東文選』 卷92, 「己亥之夏 日本國遣使來聘 沙門祐公隨之 蓋欲托行事而實訪乎名山者也 其爲人也端潔有道氣 字畫詩律 俱有可觀……其年秋 使乘傳以訪所謂金剛山 極其游觀之美 隨遇隨記 其爲文無慮萬言矣」

21) 中宗 049, 18/09/06(癸酉), “一鶚東堂等云 久留旅館 無以遣懷 請登高遊覽云……今亦依前例 許令遊覽如何”

데, 안타깝게도 正祐의 행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고려말의 일이기는 하나 日本僧 永茂가 오대산에 노닐 기록이 鄭夢周와 鄭道傳의 문집에 실려 전한다. 永茂는 당시에 石房寺에 살고 있었는데, 오대산을 유람한 감회를 시로 읊고 이 시로써 또한 조선측의 문사들과 장화를 했다. 정도전의 「次韻日本茂上人詩卷」과 정몽주의 「次牧隱先生韻贈日本茂上人」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양자 공히 自註를 통해 永茂가 오대산에 유람하고자 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²²⁾ '전례에 따라 유람을 허가'했다면 아마도 금강산 뿐 아니라 오대산 등을 유람하였을 것이며, 또 자연스럽게 양국문인간의 시문 장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밖에 朴祥의 『訥齋集』에는 日本僧 易窓이 동래온천을 찾은 기록이 남아 있다. 易窓은 중종16년(1521)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왔을 때에 예조에 청하여 동래온천에서 복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²³⁾ 이에 앞서 여러차례 사신으로 파견되어 조선을 찾았던 弼中 역시 귀로에 風詠樓와 嶺南樓에서 金安國과 시문을 창작한 기록이 남아 있다.²⁴⁾

성종18년에 來聘하면서 『杏林亭詩軸』과 『贈行元鶯詩卷』을 지니고 와서 많은 조선문사들과의 詩文唱和를 남기고 있는 元鶯 역시 조선에 머무는 동안 유람을 즐겼던 것 같다. 서거정의 「四佳集」 등에는 元鶯과 관련된 시문이 많이 남아있는데, 元鶯의 환국에 즈음해서 지은 60구로 된 장편의 5언시를 지었는데, 그 가운데 “上人이 使行을 수행해서, 태평한 세상에서 즐거이 觀光하네”²⁵⁾라는 구절이 있다. 元鶯 역시 조선에 체류하는 동안 국내의 이곳저곳을 유람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조선에 사행을 떠나는 元鶯에게 景徐周麟은 「送文成藏主遊朝鮮國」이란 시를 지어주기도 하였다.²⁶⁾ 景徐周麟은 성종대

22) 鄭夢周: 『圃隱集』 卷2 面16 「次牧隱先生韻贈日本茂上人」, “時日本僧永茂欲遊五臺山” 및 鄭道傳: 『三峰集』 卷2 面29 「次韻日本茂上人詩卷」 “按永茂欲遊五臺山”

23) 朴祥: 『訥齋集』 卷5 面41 「中原 贈日本僧易窓 冒雨自驪州韻」의 注, “請浴東萊禮曹啓準之故云”

24) 金安國: 『慕齋集』 卷1 面23 「風詠樓 次弼中韻」 및 「嶺南樓醉席上 走次弼中韻」 參照

25) 徐居正: 『四佳集』 補遺1 面32, 「送日本僧元鶯還國」, “上人隨使節 昭代快觀光”

26) 上村觀光編: 『五山文學全集』 詩文部 第4輯(東京 民友社, 1915) p.130. 米谷均의 전해에 의하면, 景徐周麟이 送詩를 써준 文成藏主는 곧 『贈行元鶯詩卷』과 「杏林

에 日本에서 朝鮮에 보낸 國書의 大部分을 찬술했고 ‘朝鮮의 책은 글자가 커서 老眼에 편하다’²⁷⁾고 말할 정도로 조선쪽 사정에 밝았던 五山の 禪僧이다. 遊라는 말이 반드시 유람을 뜻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명승지의 유람도 일본 사승들이 사행의 부수적인 목적으로 여겨졌음을 짐작한다. 元鰲은 五山을 대표하는 京都 南禪寺의 僧侶로 明에도 여행을 했다. 景徐周麟은 이 때에도 元鰲에게 주는 送詩의 서문에서 “일찍이 배를 얻어타고 鷄林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다시 이번 여행이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중국 산천풍물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즐기고 이를 시문으로 아름답게 다듬기 위해서일 터이니 가상하다 하겠다.”²⁸⁾고 썼다. 이 문장의 문맥으로 보아서는, 文成藏主는 조선 산천의 아름다움을 읊고 조선문인들과의 창화를 기록한 使行錄을 남겼을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현전하지 않는다.

Ⅲ. 朝鮮前期 韓日兩國 文士の 詩文唱和의 實際

1. 朝鮮前期 詩文唱和의 不傳記錄

조선전기에는 한일양국간의 교섭통로가 다양하게 열려져 있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신 파견의 주체도 다양했고 사신 파견의 횟수도 많았다. 양국문인간의 접촉에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다양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진 사신왕래에 비례해서 사행록이나 시문창화의 기록이 이루어졌을 터이나, 양국 공히 송희경의 『日本行錄』과 신숙주의 『海東諸國記』 이외에는 이렇다 할 사행록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해동제국기의 경우, 일본의 문물제도와 여러 지역의 사정을 기록한 것으로 시문창화와는 거리가 있다. 임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루어진 사신의 왕래에서 조선은 김성일의 『海槎錄』이, 日本

亭詩軸』를 지니고 와서 和章을 구한 元鰲이라고 한다. 米谷均, 『日本關係朝鮮史料』(『古文書研究』第48號, 日本古文書學會, 1998) 참조.

27) 앞과 같은 책 p.407 「答牧松和尚」, “高麗之本 字大尤便于老眼也”

28) 앞과 같은 책 p.172 「送龍山文成翁公藏主遊大明國序」, “嘗附海舶入鷄林 今又有此行 是無他 中華山川風物美 寓之於目 玩之於心 而欲潤色其文也 可尚矣”

은 玄蘇의 『仙巢集』가 전해지고 있으나, 이는 일본쪽의 室町幕府 이후의 일이므로 앞의 경우와는 구별된다. 결국 양국을 통틀어 室町時代に 대응되는 朝鮮前期의 詩文唱和集은 宋希環의 『日本行錄』이 유일한 예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宋希環의 『日本行錄』에 앞서 이루어진 日本使行錄, 다시 말해 日本에서의 시문창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행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려 우왕원년(1375)에 처음으로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던 羅興儒 역시 자신이 일본 각지에서 지은 시와 일본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시를 모아 『中順堂集』을 출간했었다.

遷襲는 자정하여 사명을 맡고 일본에 가서 사물에 접해서 회포가 흥기하면 문득 시로 형용한 것이 250편에 달하였고, 日本의 曹溪禪者로부터 증정받은 것이 또한 20편이었다. 史家가 그 원본을 얻어서 등사해두었고, 대신이 또 보기를 청하고 府尹의 縉紳이 다 얻어보기를 위하여 다투어 구하기를 적지 지금 3년인데도 오히려 그치지 아니한다.²⁹⁾

270여수에 달했다면, 224수인 宋希環의 『日本行錄』 못지 않은 사행록이다. 日本의 禪僧으로부터 받은 시가 20여편이었다면 화운한 시 역시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史家가 그 원본을 등사해 두고 대신과 부종의 진신이 다투어 이를 보기를 청했다는 것으로 보아서는 당시 조야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中順堂集』은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宋希環의 『日本行錄』에 필적할 만한 사행록이었던 것이다. 이 『中順堂集』은 상주에서 출간되었는데, 나흥유는 이 책에 무척 애착을 느꼈던지 책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재촉했다고 한다.³⁰⁾ 『中順堂集』의 출간년도는 분명하지 않으나 서문에 ‘지금 3년’이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1378년 전후일 듯하다.

조선 건국 직후인 태조6년(1397)에 日本國 六州牧 義弘이 사자 永範과 永廓을 보낸 것에 대한 회답으로 國禮使 朴淳之를 파견하였다. 朴淳之는 우여곡절 끝에 京都에 가서 국서를 전하고 정종1년(1399)에 귀국하였는데, 이 때의 전

29) 李穡: 『牧隱集』 文藁 卷9 面4 「中順堂集序」, “自請奉使日本 遇物興懷 輒形於詩 凡二百五十篇 日本曹溪禪者所贈 又二十篇 史氏索其本贈藏之 臺臣又請觀之 府中縉紳 咸願目觀 爭求之 今三年矣 而猶未已”

30) 李穡: 『牧隱集』 詩藁 卷23 面29, “羅判書將刊其中順堂集於尙州 托書於僕 以求速成 甚矣 其嗜詩而欲其傳於世也”

문을 시로 읊은 것이 『朴判事日本行錄』이다.³¹⁾ 李詹은 이 책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선생은 日本에 머무른 2년동안 마음에 느껴진 것 가운데 사랑스럽고 놀랍고 괴이하고 탄식할 만한 것이 있으면 모두 시로 그려내었다. 시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탄복하지 않음이 없었다. 하루는 약간의 시를 소매에 넣어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언뜻 보아도 선생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³²⁾

발문으로만 보아서는 출간 여부는 알 수 없으나, 朴惇之의 『日本行錄』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대체로 그가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느꼈던 바를 기록한 것이기는 하겠으나, '시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탄복하지 않음이 없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는 창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이들 기록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 예로 미루어 조선 후기 못지 않게 조선전기에도 다양하고 활발한 인적교류와 그에 따른 문학적 교섭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예는 조선에서 日本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문인들의 日本使行錄의 예이지만, 日本使僧 또는 日本僧으로서 조선을 찾았던 기행을 기록으로 남겼던 예도 있다. 조선전기에는 일본에서 조선을 찾는 경우가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된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현전하는 기록은 없고, 이름만 전하는 행록과 기행록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은 예를 들 수 있을 뿐이다. 그 예가 文成藏主와 正祐이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文成藏主에 관한 기록은 景徐鳳麟의 『翰林葫蘆集』에만 남아있다. 이 책에 실려있는 「送龍山文成驚公藏主遊大明國序」의 내용으로 보

31) 村井章介는 『東文選』에 실려 있는 李詹의 「朴判事日本行錄跋」을 들어 朴瑞生의 日本使行을 설명하고, 朴瑞生이 「日本行錄」이 지었은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朴判事日本行錄跋」이 李詹의 글이기 때문에 『朴判事日本行錄』은 박서생의 저작이 아닌 것이다. 박서생의 통신사행은 세종11년(1429)인데, 李詹의 생몰년(1345-1405)으로 보아 이점이 박서생의 일본행록에跋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村井章介의 前掲書 pp.142-144.

32) 李詹: 「雙梅堂篋藏集」卷25 而13 「朴判事日本行錄跋」, “先生寓日本二年 有感於心者 其可愛可愕可怪可歎 一寓於詩 既成 以示其人 無不歎服 一日 袖若干篇 來示餘 餘一見而得先生心也”

아, 京都 南禪寺의 승려 文成藏主도 조선을 유람하고 승경에 대한 제영과 조선문인들과 창화한 것을 기록으로 남겼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른바 ‘朝鮮行錄’을 남겼다는 구체적인 문구는 없다. 이에 비해 正祐는 조선을 유람하고 이불행록으로 지어 조선조정에 헌정했다는 사실이 『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되어 있다. 이를테면 正祐의 ‘朝鮮行錄’인 셈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소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2. 宋希環의 『日本行錄』과 正祐의 ‘朝鮮行錄’

많은 기록물이 산일되고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宋希環의 『日本行錄』은 한 일문인간의 시문창화의 실상을 파악함에 있어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자료이다. 『日本行錄』에는 宋希環이 日本使行의 명을 받고 서울을 출발한 세종2년(1420) 윤정월 15일부터 임무를 마치고 복명한 다음해 10월 26일까지 지은 기행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 시는 대부분 일본문인들에게 보여주거나 그들의 시에 차운한 것들이다. 다시 말해, 일본문인과의 시문창화의 기록인 것이다. 宋希環과 더불어 시문을 창화한 이들로서는 亮倪, 正祐, 永盛, 可藏, 伊東殿, 藤殿, 周冕, 梵道, 雲水沙門 등을 들 수 있으나, 이 가운데 亮倪와 正祐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亮倪는 宋希環의 日本使行時 줄곧 동행했던 사승일 뿐 아니라 宋希環의 창화가 집중되어 있는 때문이고, 正祐는 같은 시기에 宋希環의 『日本行錄』에 상대되는 ‘朝鮮行錄’을 남겼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亮倪는 博多 妙樂寺의 禪僧으로 號는 無涯, 字는 懶眞이다. 세종1년 조선은 왜구를 소탕할 목적으로 대마도에 출병하였는데, 亮倪는 그 직후에 日本國王使로 조선을 방문했다. 朝鮮朝廷側으로서 對馬島征討에 대한 幕府의 반응이 궁금했을 것이나, 亮倪가 지니고 온 日本의 書契에는 對馬島征討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지 대장경 7천축을 구한다는 내용만이 적혀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측에서는 亮倪의 이번 사행의 진정한 의도가 대장경의 청구에 있지 않고 다른 쪽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런만큼 이들 日本國正使에게 화호의 뜻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도 있었다. 亮倪가 조화에 참여하여 세종에게 서계를 전할 때, 亮倪에게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대장경뿐이라고 대답하는 亮倪에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하라”며 재삼 물은 것은 이 때문이다. 이같은 양국간의 긴장관계를 감안하여 세종은 그 자리에서 대장경 1부를 주겠다고 했고, 亮倪는 세종을 堯舜에 비기고 ‘聖朝의 皇化’라고 추어올리는 내용의 시를 미리 준비했다가 세종에게 바쳤던 것이다.³³⁾

宋希環은 이러한 미묘한 시기에 회례사로 일본에 파견되었으며, 『日本行錄』의 시문에는 화호의 뜻을 일본측에 전하고자 하는 송희경의 의도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 | | |
|--|---|
| (1) 文明한 聖主의 一視同仁 마음인데,
구구하게 눈물이 옷깃을 적실손가. | 文明聖主視仁心
何用區區淚濕襟 ³⁴⁾ |
| (2) 풍경도 다름없고 물결 정히 고요하니,
조선과 일본은 한 집안의 봄이로다. | 風景不殊波正靜
朝鮮日本一家春 ³⁵⁾ |
| (3) 두 나라가 한 집되어 태평한 때에,
사신으로 여기와서 노니는 일 자랑스러워. | 兩國爲家太平日
堪誇奉使此來遊 ³⁶⁾ |
| (4) 조선과 일본은,
옛부터 사귀어 친하였고,
하물며 지금은 한 집안처럼 되어,
星槎의 배 海門에 뗏네.
가나 머물거나 한집안인데,
이별을 어찌 대단하게 여길까. | 朝鮮與日本
自昔相交親
況今爲一家
星槎泛海門
去住一家內
別離何足珍 ³⁷⁾ |

(1)과 (2)는 亮倪에게, (3)과 (4)는 監護인 藤殿에게 보인 시구이다. (4)의 序에 “藤은 甲斐殿의 軍伴인데, 사람됨이 순박하고 정직하였다.”라는 문구가 있다. 宋希環은 藤殿이 일본막부에서 중요한 軍伴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 집안’이라는 표현은 양국간의 화호를 강조하는 말로써는 가장 설득력있는 말이다. 그런데, 224수 가운데 ‘한 집안’임을 강조한 4수의 시가 모두 日本國王使인 亮倪와 軍伴인 藤殿에게 증여되고 있다. 對馬島出兵으로 고조된 양국간의 긴장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뜻을 분명하게 일본측에 전하려는

33) 世宗 007, 02/01/06(乙巳)

34) 宋希環; 『日本行錄』 2月13日條 「到對馬島示倪二首」

35) 앞의 책 2月 17日條. 「與倪下坐灣石示倪二首」

36) 앞의 책 5月 1日條 「示監護藤殿」

37) 앞의 책 6月 25日條 「別監護藤野殿」

송희경의 의도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 표현이 외교적 연사임은 물론이다. 이는 자국을 대표하는 사신끼리의 창화의 특징이기도 하다.

일본을 경계하면서도 어쨌든 회유하고자 했던 송희경의 마음가짐은 (1)의 시에 보다 잘 드러나고 있다. 이는 釜山浦를 출발하기 직전에 亮倪가 지은 시에 宋希璟이 차운한 시이다. 宋希璟은 이 시에 “亮倪가 나와 함께 돌아가기를 기다리느라고 한 달을 머물러 있었다. 그의 시에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라는 글귀가 있었다.”³⁸⁾고 注를 달았다. 亮倪가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고 한 것에 대해 ‘구구하게 눈물이 옷깃을 적실손가’라고 응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구나 자국의 ‘文明한 聖主’가 일본을 一視同仁한다는 말을 붙이고 있다. “文明한 聖主”라는 표현은 물론 조선이 문명국임을 자부하는 말인데, 이어서 ‘視仁心’이라는 말로써 日本을 감쌀 것임을 말한 것이다.

송희경은 임무를 마치고 귀국후에 사행을 마무리하는 글을 쓰면서도 亮倪의 사행에 대해 ‘경전을 구한다는 핑계로 서계와 예물을 갖추어 사자를 보내 왔다. 主上이 예로써 우대하고 또 신을 보내어 화호의 뜻을 보였다’라고 쓰고 있다.³⁹⁾ 이처럼 송희경은 일본에 머무는 동안 줄곧 日本幕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번 사행의 일차적 목적이 日本幕府에 확실하게 화호의 뜻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對馬島에 도착한 宋希璟은 2수의 시를 지어 亮倪에게 보였는데, ‘잠깐 사이 扶桑섬에 내가 앉았으니 / 다시 깨달았네 皇天이 우리 聖君 돕는 것을’이라는 말로써 일본땅을 처음 밟는 감회를 표현했다.⁴⁰⁾ ‘扶桑섬에 앉았다’는 구절은 對馬島征討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으니, 宋希璟은 ‘황천이 우리 성군을 돕는다’는 말로써 對馬島征討의 정당성과 천운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송희경이 亮倪를 경계한 것만은 아니다. 거의 반년 가까이를 함께 지내면서 시문을 주고받으면서 접반을 하었는지라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정리가 싹텔던

38) 앞의 책 2月 13日條 「到對馬島示倪二首」, “倪待我同歸 留一朔 倪詩有淚濕襟之句”

39) 앞의 책 後錄, “託嘗請經 爲書契備禮物而來 上優禮待之 又遣臣回禮 以示和好之意”

40) 앞과 같은 곳, “須臾坐我扶桑島 更覺皇天佑聖君”

것이다.

船餘浦 어귀에서 가는 배 遲滯되어,
篷窓에 危坐하니 머리가 세러 하네.
술 두동이 이르니 스님 厚意 알겠네,
한잔 한잔이 異域의 시름 풀어주누나.

船餘浦口滯歸舟
危坐篷窓欲白頭
雙樽忽到知師厚
碗碗當銷異域愁⁴¹⁾

이는 바람을 기다리며 對馬島의 東面 船餘浦에 머무를 때 亮倪가 술과 고기를 보내오므로 이를 사례한 시이다. 亮倪의 후의에 감사하는 것이 의례적인 표현만은 아님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후 우여곡절 끝에 국서를 幕府에 전한 후 亮倪와 작별하게 되자, 宋希環은 그 동안의 정회를 시로 써서 亮倪에게 보였다.

峇記의 風采 빼어나,
사신되어 임금을 뵈었네.
반년동안 담소를 같이 했는데,
오늘 서로 이별하게 되었네.
멀리 5천리를 떠나가지만,
응당 하루종일 생각하리라.
강호에 기러기 이르거든,
가을 읊는 시 아끼지 마시게나.

峇記秀風姿
乘槎拜玉墀
半年同笑語
今日見分離
遠去五千里
應思十二時
江湖鴻雁到
莫惜詠秋詩⁴²⁾

이 시에는 과도한 문화적 우월감이나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의례적인 찬사도, 문필력 경쟁이나 미묘한 신경전도 없다.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인연의 끈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박한 인간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을 뿐이다. 宋希環과 亮倪가 주고받은 몇 편의 시를 통해, 국가와 처지가 다른 두 사람이 신뢰와 인간적인 우의를 맺는 모습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송희경이 사명을 받고 서울을 출발할 때부터 京都에 이르러 일본의 幕府에 국서를 전할 때까지 줄곧 동행하면서 시문을 주고받았던 亮倪와 달리, 正祐는 송희경과 몇 차례만 회동했을 뿐이다. 그런 때문으로 『日本行錄』에도 송희경

41) 앞의 책 2月 21日條 「謝無涯送魚酒二首」

42) 앞의 책 6月 25日條 「別倪峇記」

이 正祐와 주고받은 시문은 차운시 4수에 증시 1수가 있을 뿐이다. 그렇기는 하나, 正祐는 조선전기 한일간의 문학적 교섭관계를 살핌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다. 正祐는 현전하지는 않지만 송희경의 『日本行錄』에 상대되는 ‘行錄’을 짓기도 했기 때문이다.

正祐는 號가 文溪, 字는 乾塚이며 亮倪와 마찬가지로 妙樂寺의 승려이다.⁴³⁾ 세종1년(1419)에 九州節度使의 사신으로 파견되어왔으나 義를 사모하여 머물러 있기를 청해서 허락받았다.⁴⁴⁾ 正祐가 산천승지에 유람하고자 하므로 조선 조정에서는 안장갖춘 말과 의복을 내려 우대의 뜻을 보였고, 正祐는 이같은 후대에 대해 시를 지어올려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正祐는 興天寺에 우거하였는데, 史官은 正祐에 대해 시도 좀 알고 글씨도 쓸 줄 안다고 평하고 있다.⁴⁵⁾ 다음해 윤정월, 日本國王使로 왔다가 환국하는 亮倪와 함께 하직의 예를 취하는 조회에 참여하여 스스로 行錄을 지어바치고 文士가 전송하는 시를 지어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문신에게 명하여 전송하는 시를 지어주게 하였다.⁴⁶⁾ 일본사승으로서 전송하는 시를 지어주기를 청한 것은 正祐가 처음으로, 이후에는 종종 일본사승들이 자신들을 전송하는 시문은 물론 題誦詩나 讚, 詩卷의 跋文, 道號의 讚 등을 청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 조선조정에서는 日本使僧들이 시문을 청하면 대개는 규장각이나 예문관의 문신들로 하여금 시문을 지어주게 하였다. 왕명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조선의 대표적인 문인들로서는 자연스럽게 日本使僧과 문학적 교류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正祐는 양국문인간의 문학적 교섭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셈이었다.

현전하는 史料를 통해 파악되는 바로는, 正祐는 세 차례의 朝鮮使行을 했

43) 村井章介는 『東アジアの往還』에서 『東文選』에 실려있는 釋世雨의 「送日本僧文溪」의 내용을 들어 文溪가 京都의 相國寺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文溪가 조선에 처음 파견되었을 때에는 九州節度使의 사신이었고, 송희경 일행이 일본에 파견되었을 때 文溪가 송희경을 초대할 곳도 妙樂寺였다. 송희경이 文溪와 시문을 창화한 것도 송희경 일행이 博多에 머물러 있었던 시기에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京都에서는 만난 기록이 없다. 그렇게 볼 때, 文溪는 妙樂寺와 관련이 있는 승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村井章介의 前掲書 p.141 參照.

44) 世宗 004, 01/05/29(癸酉)

45) 世宗 004, 01/06/01(甲戌) 및 01/06/03(丙子)

46) 世宗 007, 02/01/06(乙亥)

다. 이 가운데 세종 1년과 세종30년의 사행시 자신을 전송하는 시문을 지어줄 것을 청하므로 많은 문인들이 이에 응하여 送詩를 지었고, 그 결과 2종의 詩卷이 만들어졌다. 이 詩卷의 현전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그 일부의 송시가 尹祥과 成石璘의 문집에 실려 전해지고 있다. 이들의 작품 이외에는 대부분이 산일된 送詩와는 달리, 2종의 詩卷에 대한 서문은 모두 전해진다. 첫 번째의 詩卷에는 鄭以諝가, 두 번째의 詩卷에는 朴彭年이 序文을 썼는데, 2개의 서문 모두 그들의 문집에 실려있다.

금년 봄에 일본 중 文溪가 사명을 받들고 와서 화호로써 교린할 것을 말하였으며, 또한 致祭의 예를 행하고 아울러 불교의 경전을 구하였다. 그 무리 약간을 수상이 有司에게 명하여 맞이해서 대접하고 몇 등급을 높여 禮待하게 하였다. 그가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가 되자, 시 한 편을 지어 館伴 姜侯에게 주어서 緡紳間에 말해줄 것을 구하므로 이말을 듣는 자마다 모두 시를 짓고는 나에게 서문을 지을 것을 부탁하였다.⁴⁷⁾

이는 文溪가 세종30년에 사명을 마치고 환국할 때에 조선문인들이 그를 전송하는 시를 지은 것이 詩卷을 이루므로, 문인들의 부탁으로 朴彭年이 지은 서문의 일부이다. 서문의 내용으로 보아 文溪가 시를 써서 館伴인 姜侯에게 전하면서 조선문인들의 창화를 청하였고, 이 시가 매개가 되어 그의 전송을 위한 시권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文溪에게 송시를 지어준 문인들 가운데, 成石璘은 文溪를 위해 送詩를 짓는 것 외에도 거둬 차운시를 주고받았다. 成石璘과 文溪의 접촉이 있었던 것은 文溪의 첫 사행 때의 일로, 成石璘의 『獨谷集』에 실려 있는 「送日本文溪禪人還歸」⁴⁸⁾・「送日本文溪禪人還歸五首」・「次韻二首」・「復次文溪禪人還歸詩韻三首」 등은 모두 그때 지어진 것이다.⁴⁹⁾

成石璘과의 창화는 正祐에게 무척 인상적이었던 모양이다. 正祐가 成石璘과 시문을 주고받은 후 귀국한 지 20년이 지난 세종22년, 正祐의 제자인 知融이란 승려가 다시 조선을 찾았다. 知融은 正祐가 寓居했던 興天寺의 舍利閣을

47) 朴彭年; 『朴先生遺稿』 卷1 面28 「送日本釋文溪使還詩序」, “今年夏 日本釋文溪者 奉使而來 以講隣好 且致祀禮 併請釋典 其徒凡若干 上命有司 還候館穀 禮數有加 及其事完而還 賦詩一篇 贈館伴姜侯 以求言於緡紳間 聞者咸詩之 而姜僕爲敘”

48) 成石璘; 『獨谷集』 卷上 面42

49) 앞의 책 卷下 面37, 38.

유람한 후 절구 1수와 짧은 서문을 써서 절의 중에게 주었는데, 이 서문과 절구는 『朝鮮王朝實錄』에 수록되어 있다.

舍利殿 절은 조선의 제일 좋은 경치이다. 우리 스승 文溪老納이 15년 전에, 이 산중에 錫杖을 머무른 지 겨우 5년 만에 힘이 다하여 참선하지 못하고 차차 동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었다. 菴老와 宿德이 작별에 임하여 전송시 몇 편을 주었는데, 그 중에 獨谷老人의 시에 이르기를, ‘예전 일 본 땅에 고승 났단 말 들었더니, 文溪 보니 과연 일찍이 못 본 일동일세. 고국은 큰 물결 넘어 몇 천리런가. 객창의 중 올리는 새벽에 외로운 등불만 한가닥이네.’ 라고 하였다. 내가 이것을 증거삼아 우연히 이름난 절을 심방하여 祖塔에 삼가 참배하고, 또한 獨谷老人의 유적을 묻는 바이다. 비록 불민하나 拙儒 한 장을 지어서 삼가 여러 형제의 玉机 아래에 받들어 바치오니, 엿드려 바라건대 장화하여 주면 다행이로다.⁵⁰⁾

知融이 15년이라 한 것으로 보아, 正祐는 세종2년에 귀국했다가 다시 興天寺로 돌아와 몇 년을 더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知融이 말한 獨谷老人의 시란 成石璣의 「送日本文溪禪人還歸五首」 제1수이다. 이 시를 주고받은 지 십수년 후에 그 제자가 온전하게 그 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正祐는 귀국해서 자신을 전송한 시편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사명을 받고 조선에 가는 知融에게 成石璣의 근황을 알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보인다.

正祐가 지어올린 행록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아마도 그가 반년동안 興天寺에 寓居하면서 산천승지를 유람했던 기행시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朝鮮行錄’인 셈이다. 그 내용을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 釋岷雨의 시이다.

동악에서는 구름이 나막신 밑에 나고,	楓岳雲生屐
분성에는 달이 성에 가득하리.	盆城月滿關
돛대에 바람불어 바다 하늘 넓으니,	風帆海天闊
매화와 버들이 있는 옛마을의 봄을 찾아가리.	梅柳古鄉春 ⁵¹⁾

50) 世宗 089, 22/05/20(辛酉), “舍利殿寺 迺是朝鮮第一勝槩也 吾師文溪老納 十五年 前錫留於山中 纔五紀 力窮未參 而稍東歸 眷宿臨別 見送詩數篇中 有獨谷老人之 詩云 昔聞日域出高僧 今見文溪果未曾 故國鯨波幾千里 客窓鐘曉一孤燈 餘以是爲 證 偶題名簡 奉拜祖塔 亦問谷老之遺跡者也 雖不敏 述拙揭一章 謹奉呈諸兄弟之 玉机下 伏希喆和爲幸”

‘楓岳에서는 구름이 나막신 밑에 난다’고 한 것은 금강산에 올라갔다는 뜻이고, ‘盆城에는 달이 城에 가득하다’고 한 것은 김해 인근의 고적을 찾았다는 뜻이다. 곧 正祐가 조선에 머무는 동안 남쪽으로는 김해의 본성에서 북으로 금강산까지 두루 유람했음을 말한 것이다.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正祐가 이곳저곳을 두루 유람하곤 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正祐가 ‘朝鮮行錄’을 지어 헌정했던 세종2년을 전후해서 前大提學 鄭以諤는 日本으로 돌아가는 天祐上人을 보내는 送序를 썼다.

금상전하가 즉위하면서 문치를 일으키고 무비도 수리하며 교린에도 도가 있어서 사방에 근심이 없으니, 이 나라를 찾는 사람도 얼마나 좋겠는가. 기해년 여름에 日本國이 사신을 보내고 조회하는데 沙門祐公이 따라왔으니, 대개 사명을 띠고 온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명산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생김새가 단아하고 깨끗하여 道氣가 있고 글씨와 그림, 詩律이 모두 볼 만하였다. 전하가 그가 의리를 사모하고 정성바치는 것을 가사히 여기고 有司에게 명령하여 館에서 응송하게 대우하게 하였다. 그가 돌아갈 시기가 되니, 祐上人이 우리 조정애 아뢰기를, “금강산의 영이함은 천하에 이름이 나서 우리처럼 禪者로서 유람하는 사람은 이 산에 가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여기오니 원컨대 錫杖을 머무르고 구경하게 하소서”라 하였다. 인하여 시를 지어 그 뜻을 통하고 이 말을 우리 임금에게 아뢰어 달라 하였다. 그래서 禮官에게 명령하여 그의 소원대로 머물러 있게 하고 또 특별히 안마까지 주어 더욱 응송히 대우하게 하였다. 그해 가을에 역마를 타고 가서 금강산을 찾아가게 하여 마음껏 구경하고 보는 대로 기록하여 글로 만들었으니 무려 만 마디에 이르렀다. 내가 빌려다 읽어보니 화려한 文章이 번쩍 눈에 띄는 것이 禪寂한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잘할 수 없었다. ……지금 上人은 그 도에 독실하고 또 문예에 힘쓰니 그 나라에 있을 때에 일찍이 그 임금으로부터 존중받아 文溪란 이름을 주어 특별히 총애하기까지 되었다. ……文溪는 더욱 힘쓸지이다.⁵¹⁾

51) 釋出雨; 『送日本僧文溪』, 『東文選』 卷10.

52) 鄭以諤; 『送日本天祐上人還歸序』, 『東文選』 卷92, “今殿下卽祚 文治興武備修 交隣以道 四方無虞 爲參訪者 不亦樂乎 己亥之夏 日本國遣使來聘 沙門祐公隨之 蓋欲托行事而實訪乎名山者也 其爲人也端潔有道氣 字畫詩律 俱有可觀 殿下嘉其慕義納款 命有司館待既隆 及將還也 祐上人進言於朝曰 金剛山靈異之迹 擅名於天下 吾禪而遊者 以不到是山爲嫌 願留錫以觀之 仍賦詩達其志 使轉告於吾君 於是 命禮官從其願留 又特賜鞍馬而待之益隆 其年秋 使乘傳以訪所謂金剛山 極其游觀之美 隨遇隨記 其爲文無慮萬言矣 予借一讀之 辭綵曄然溢目 非禪寂者所能也……今上人既篤於其道 又攻乎文藝 皆在其國 而爲其君所器重 至賜號文溪 以寵異之……

天祐上人⁵³⁾을 보내는 글이라고 하였으나 '文溪는 더욱 힘쓸지어다'라고 끝맺고 있다. 鄭以棼가 天祐上人이라 稱한 使僧은 다름아닌 正祐인 것이다. 실제로 이 글의 내용은 『朝鮮王朝實錄』에 실려있는 正祐 관련기록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기해년 여름'이라고 하였는데 正祐가 九州節度使의 사신으로 내빙한 것이 같은해 5월이고⁵⁴⁾, '羲를 사모하여 머물러 있기를 청하므로'라는 부분도 그대로 일치한다.⁵⁵⁾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으로는 세종1년 6월 1일에 안마와 의복을 하사받고 6월 3일에 감사의 뜻으로 시를 지어바친 후 다음해 윤1월 6일 환국에 앞서 하직을 고하는 조회에서 行錄을 헌정한 것으로 되어있다. 시를 지어 뜻을 통하고 머물러 있으면서 금강산을 구경하겠다는 뜻을 임금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送序의 설명이 실록의 기록과 약간 다르기는 하나, 이는 외국사신의 요청이 여러 경로를 거쳐 조정에 전달되는 데에서 생겨난 차이일 뿐이다. 正祐에 대해 '시도 좀 알고 글씨도 쓸 줄 알며'⁵⁶⁾라고 평하고 있는 부분까지 일치하고 있다. 실록의 기록에는 '6월 1일에 안마와 의복을 하사받았다'고 하였는데, 送序에서는 '그해 가을에 역마를 타고 금강산을 찾아가게 하여'라고 하였으니 이 부분도 그대로 합치한다. 送序에 있는 沙門祐公과 正祐가 동일인물이라면, 송서에서 발한 1만언의 金剛山紀行記錄이 곧 正祐가 지어바쳤다는 '行錄'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正祐는 세종27년에 日本國王使로 파견된 데 이어⁵⁷⁾, 세종30년에는 400여명의 대규모 인원을 대동하고 來朝했다. 正祐는 이때 開城府留守 姜愼德과 만날 수 있게 해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대해 『朝鮮王朝實錄』에서는 '正祐가 興天

文溪其勉之哉”

53) 李崇仁의 『陶隱叟』에도 「送日本釋有天祐上人還國序」가 있기는 하나, 이 글의 天祐上人是 鄭以棼의 送序에 있는 天祐上人과는 별개의 인물로 보인다. 이 글의 天祐上人是 鄭夢周가 사명을 마치고 돌아올 때 동행하였고, 스스로 이름을 大有라고 한다고 말했으니 그 내용에 밝혀져 있다. 鄭夢周의 사행은 우왕3년(1377년)의 일이고 鄭以棼의 送序가 쓰여진 것은 1420년 이후의 일이므로, 양자가 동일인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54) 世宗 004, 01/05/23(丁卯)

55) 世宗 004, 01/05/29(癸酉)

56) 世宗 004, 01/06/01(甲戌)

57) 世宗 113, 28/09/09(甲戌)條에 '지난해 가을에는 그 사신 正祐의 말로써 그들의 방문에 대해 단례하지 못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寺에 寓居할 때에 碩德이 오래 상종하였는데, 이번에 와서 청하여 보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⁵⁸⁾ 거의 30년이 지난 후에 興天寺에서 교유하던 姜碩德을 만나게 해줄 것을 청했던 것이다. 이에 앞서 正祐는 乃而浦에 도착한 직후 예조에 서신을 보내어 이번 사행의 목적을 통보하였는데, 그 가운데 금강산 유람에 대한 언급이 있다.

日本正使 文溪正祐는 再拜頓首하고 조선국 예조의 여러 閣下에 狀을 올립니다. 소승이 壯年 때에 대국에 와서 놀아 좌우의 알이주심을 입었고 의복과 안마를 주심이 실로 많았습니다. 풍악의 金仙의 자취에 올라가보았을 뿐 아니라, 또한 大朝의 문물의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으니 무슨 다행함이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이후 28년 동안 마음에 새기어 잊지 않고 자나 깨나 생각하였습니다.⁵⁹⁾

세종1년 가을의 금강산 유람을 늘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한 것은 앞의 여러 사례로 미루어 볼 때, 결코 과장된 표현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좌우의 알이주심'이란 아마도 正祐가 興天寺에 寓居할 때에 교유하던 성석린과 강석덕 등을 말한 것일 듯하다. 正祐는 그때의 교유를 이후에도 늘 잊지 못하여 제자인 지음을 보내어 成石璘의 소식을 묻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예조에 말하여 강석덕을 만나게 해줄 것을 청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鄭以諤의 送序는 다름아닌 正祐를 위한 것이 분명한 듯하다. 鄭以諤의 送序와 釋卍雨의 送詩를 종합해 볼 때, 正祐의 '行錄'은 육로의 출발지점인 김해에서부터 서울에 이르기까지의 여행기록과 금강산기행의 기록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 당대의 사행록이 대체로 그러하듯 '行錄'에도 양국문인과의 창화가 포함되어있을 것임은 물론이다.

正祐가 興天寺에 寓居하면서 여러 문사들과 교유하고 명승을 유람했던 기록을 묶은 것이 '朝鮮行錄'인 셈인데, 이런 전후사를 미루어 볼 때 세종30년까지도 正祐가 조선조정에 헌정한 바 있는 '朝鮮行錄'의 복본이 正祐 주변

58) 世宗 120, 30/06/21(乙亥), “初正祐之寓興天也 碩德久相從 今之來 欲請見之 故有是議”

59) 世宗 120, 30/04/27 (壬午), “日本正使 文溪正祐 再拜頓首 上狀朝鮮國禮曹諸位閣下 小僧壯年遊方於大國 辱爲左右所知 衣服鞍馬拜謁寬多 非翅攀金仙之闕 抑亦獲觀大朝文物衣冠之美 何幸過焉 邇來二十八年 銘佩不忘 寤寐思之”

에 전해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松泉幽處詩卷과 杏林亭詩軸

日本使僧들은 자신의 한국을 기념하는 送詩나 送序를 부탁하는 외에 堂號나 字號에 대한 贊과 詩, 題畫詩, 詩卷에 대한 차운시 등을 청하기도 했다. 자신의 것은 물론이고, 日本 국내에 있는 유력인사의 의뢰를 받아 그들의 詩卷이나 畫軸에 대한 贊을 부탁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松泉幽處詩卷』과 『杏林亭詩軸』은 당시에 日本使僧들의 사행을 매개로 한 양국간의 문학적 교섭이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松泉幽處는 세종대에 몇 차례 조선에 파견되었던 日本使僧 梵齡의 堂號이다. 梵齡이 처음으로 조선을 찾은 것은 세종4년의 일로, 그는 이때 松泉幽處의 편액을 청해서 鄭陟이 篆字로 쓴 편액을 얻어 돌아갔다. 梵齡은 2년뒤인 세종6년에 다시 사명을 받아 조선을 찾았는데, 이때에는 正使인 圭壽와 함께 자신들이 지니고 온 山水圖 및 道號에 대한 讚과 시를 구하였다. 이에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로 하여금 梵齡등이 구하는 讚과 詩를 짓게 하였는데, 그 가운데 魚變甲이 지은 山水圖讚, 俞尙智 俞孝遜 申樞 등이 지은 山水圖詩, 金尙直이 지은 竹軒詩, 申樞의 梅窓詩, 魚變甲이 지은 雪庵詩, 安止가 지은 畫觀音讚 등이 『朝鮮王朝實錄』에 실려 전한다.⁶⁰⁾ 문맥으로 보아 이들은 몇 편의 山水圖와 觀音讚를 지니고 와서 讚을 구했던 것이고, 竹軒 梅窓 雪庵 등은 이들의 道號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의 사행은 타고온 배가 16척에 거느린 사람이 523명이었다고 하니, 조선후기에 조선에서 日本에 파견했던 통신사의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의 사절단이었던 것이다.

다음해인 세종7년에 다시 사명을 받아 온 梵齡은 한국에 앞서 예조에 서신을 보내어 전별시를 청하였다.

소송이 거처하는 방을 松泉幽處라고 일컬었사운데, 임인년 설달에 제가 篆字로 쓴 너 자를 구하매, 鄭陟에게 명하여 篆字로 써 주셔서, 나라로 가지고 돌아가서 보며처럼 간직해 두었습니다. 소송이 임인년부터 이월 을사년

60) 世宗 023, 06/01/25(壬寅)

까지 4년 동안 세 번 사명을 받들고 왔사온데, 앞의 3년은 喪中이시므로 餞別詩를 청구하지 못하였사오니, 이제는 이미 喪期를 마치셨사오니 시를 잘 하는 선비를 시켜서 ‘松泉幽處’라는 제목으로 나의 귀국하는 길을 보낸다는 뜻으로 장편이나, 혹 7언, 아니면 5언이나 8구로 각각 잘하는 바대로 짓게 하여 주시기를 깊이 깊이 바라오니, 잘 주선하여 주시면 매우 다행일까 하나이다.⁶¹⁾

이같은 梵齡의 청에 따라, 세종은 예문관에서 주관하여 문신들에게 시를 지어 보내주도록 명하였다. 이에 李稷 權弘 鄭以諤 등이 시를, 權採가 이 詩卷에 대한 서문을 지었는데, 이들 시문은 모두 『朝鮮王朝實錄』에 그대로 실려 있다.

우리 전하께서 즉위하시던 당초에 倪上人和 祐文溪의 일행이 서로 잇따라 들어오니, 이들이 또한 모두 문치 있는 중이었다. 이제 齡上人이 역시 법을 구하려고 임인년부터 을사년에 이르기까지 4년 동안에 사명을 띠고 우리나라에 온 것이 세 번째라, 전하께서 그 뜻을 가상히 여겨 有司에 명하시어, 교외에서 맞이하여 위로하고 使館에서 등을 높여 대접하게 하시었다. 上人은 젊고 학문이 깊으며, 모습은 파리하나 정신은 穎發하여 명랑하고 청수하니, 바라보면 산골에서 나온 일음을 玉瓶에 담아 놓은 것 같았다. 하루는 그의 松泉幽處라는 편익을 縉紳先生들에게 청하기를, ‘지난해 인인년에 특히 篆字로 써서 하사하심을 맡아 내가 진실로 보배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거니와, 원컨대 한말씀을 주시와 끝내 은혜가 되게 하소서.’ 하니, 이에 조정 안의 문사들이 모두 시를 짓고, 또 나를 시켜 서문을 쓰게 하였다.⁶²⁾

이는 權採가 지은 서문의 일부이다. 같은 내용의 글이 『日本國使齡上人松泉幽處詩卷序』란 제목으로 『東文選』에도 실려 전한다. 梵齡이 예조에 보냈다는 서신의 내용과 큰 차이는 없으나, 梵齡의 서신에는 전별하는 뜻이 강조된 반

61) 世宗 028, 07/04/23(壬戌), “小納所居之室 號松泉幽處 壬寅之臘 予求篆書向之四字 遂命鄭陟 令篆書賜之 持歸國 以爲珍藏焉 小納自壬寅至今茲乙巳 四歲之中 三奉使 前三年 以淑陰不求歸行之詩 于今已畢 冀令營詩之 上 題松泉幽處 送予歸國之行 或長篇或七言或五言或八句 各以所長 令作之 深望深望 冀善圖爲幸甚”

62) 世宗 028, 07/05/11(庚辰), “我殿下卽位之初 有倪上人祐文溪之徒 繼踵而來 亦皆韻釋也 今齡上人 亦因求法 自歲壬寅 至乙巳四年之中 奉使於我者 三矣 殿下嘉其義 命有司交勞 館待加等 上人年芳而學穎 形臚而神暇 榮榮清立 望之如出壑之冰 盛之玉壺也 一日 以其所扁松泉幽處 請於縉紳先生曰 歲壬寅 特蒙篆書之賜 予固珍藏 願贈一言以終惠焉 於是 朝中文士 咸詩之矣 而俾予序”

면 권체의 서문에는 松泉幽處라는 편액에 대한 찬시를 구하는 것처럼 되어있는 것이 다르다. 권체의 서문과 아울러 실록에 실려 있는 權弘의 시 가운데, ‘면벽하여 무상함을 깨닫고, 시를 구하니 그 시가 만 측에 이르도다. 치졸한 시를 억지로 써서 알아보는 눈만 괴롭게 하네.’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조선문인들 사이에서도 梵齡의 문장에 대해 상당한 평가를 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梵齡은 松泉幽處에 대한 시를 청한 후 다시 자신이 지니고 왔던 시권에 대한 발문을 구하였다. 이에 예문제학 尹淮에게 명하여 글을 지어주게 하였는데, 尹淮가 지은 발문 또한 실록에 실려 전한다.

日本の 齡上人이 국왕의 사명을 받들고 내빈한 것이 세 번으로, 바다를 건너 화친을 통하게 하니 그 뜻이 勤하도다. 그 모습이 맑고 마음이 한적한 것을 보니 소연히 티끌같은 세상 밖으로 벗어날 생각이 있는 듯하여 대개 승려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준 약간의 시를 꺼내어 보여주고 그 끝에 쓸 발문을 구하거늘, 읽어보니 맑고 고와 사랑함직 하니 참으로 주머니속의 보배요 또한 죽히 山門을 빛나게 할 만하였다. 이에 발문을 적노라.⁶³⁾

‘그 나라 사람들이 준 약간의 시’라 하였으니, 梵齡은 자신의 조선사행을 전별하는 일본문인들의 贈送詩卷에 대한 발문을 청한 것이다. 山水圖와 諸觀音圖를 지니고 바다를 건너와 그 贊을 얻기를 청하고 자신의 도호에 대한 시를 구하며, 松泉幽處라는 편액을 써주기를 청하고 이에 대한 贊語를 지어줄 것을 구하였으며, 또한 자신을 贈別하는 日本文人들의 贈送詩卷을 일부러 지니고 와서 그 발문을 청했던 梵齡의 이런 저런 모습은 그가 얼마나 조선과의 문화적 교류를 열망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梵齡은 이로부터 7년이 지난 세종14년에 다시 사명을 띠고 파견되었으나, 부산포에 도착하자마자 병사하였다. 『朝鮮王朝實錄』이 이례적으로 梵齡과 관련된 여러 시문을 그대로 수록했던 것은 아마도 이런 연유도 있었을 것이다.

尹淮가 발문을 썼던 日本文人들의 贈別詩卷과 비슷한 예가 陳祖田의 『杏林

63) 世宗 028, 07/05/09(戊寅), “日本齡上人 衍國王之命 來聘者三 涉海通好 其志勁矣 觀其骨清而心寂 蕭然有出塵之想 蓋釋林之秀也 今以其國人所贈詩若干篇 出示求跋其尾 讀之 琅然可愛 信乎 藝中之珍 而亦足以煥耀山門矣 是以跋”

亭詩軸』이다. 『杏林亭詩軸』은 日本의 陳員外郎의 杏林亭에 대한 日本禪僧들의 題詠을 모은 시권으로, 성종18년에 朝鮮을 찾은 日本僧 元鶯이 來聘하면서 지니고 와서 이에 대한 서발을 구하므로 해서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朝鮮王朝實錄』에서는 이 詩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日本僧 元鶯의 贈行詩에 대한 和章과 陳祖田의 杏林亭詩에 대한 序跋을 홍문관으로 하여금 짓게 하소서.” 라 하였다. 傳敎하기를, “이 사람이 시문을 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재를 보려고 하는 것이므로 경솔하게 할 수 없으니, 문신의 堂上官과 堂下官으로서 시문에 능한 자를 골라서 지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⁶⁴⁾

‘이 사람’이라고 하였으니, 『贈行元鶯詩卷』과 『杏林亭詩軸』 공히 元鶯이 지니고 와서 이에 대한 和章과 序跋을 구한 것이다. 전자는 元鶯이 조선으로 사행을 떠남을 전별하며 그의 주변 문인들이 지어준 시들이고, 후자는 員外郎 陳祖田의 杏林亭에 대해 日本文인들이 제영한 시들이니 양자 공히 조선과는 무관하다. 『贈行元鶯詩卷』에 대한 和章이야 元鶯 자신을 전별한 시들이니 이에 대한 和韻詩를 구할 만도 하지만, 『杏林亭詩軸』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이는 아마도 陳祖田이나 그의 周邊 文人이 朝鮮으로 使行을 떠나는 元鶯에게 別途로 依賴한 것일 듯하다.

조선조정에서는 日本 文人들이 지은 2본의 詩卷을 들고 와서 이에 대한 和韻詩와 序跋을 구하므로, ‘우리나라의 人材를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시문에 능한 자를 선택하여 和韻詩와 序跋을 짓게 했는데, 堂上官으로서는 徐居正이, 堂下官으로서는 李宜茂가 그 역할을 맡았던 모양이다. 徐居正은 『東文選』을 편찬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차례 文衡을 잡았으니 명실 공히 당대 최고의 문장이였고, 李宜茂는 성종17년에 문신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몇차례의 庭試에서 잇달아 장원을 하였으니 신진관료를 대표하는 문장이였던 때문이다.

서거정의 문집인 『四佳集』에는 「次日本釋子七人題陳員外杏林亭詩軸韻」·「次

64) 成宗 204, 18/06/09(丁丑), “禮曹啓 日本僧元鶯贈行詩和章 及陳祖田杏林亭詩序後跋 令弘文館製之 傳曰 此人求詩文者 欲觀我國之人材耳 不可草率 文臣堂上及堂下官 擇能詩文者製給”

日本僧送元鷲詩」 등의 시가 실려 있고, 李宜茂의 『蓮軒雜稿』에는 「次日本僧杏林亭詩」·「次日本僧元鷲詩軸」 등의 시가 실려 있다. 이 가운데 서거정의 「次日本釋子七人題陳員外杏林亭詩軸韻」과 이의무의 「次日本僧杏林亭詩」는 7首의 七言絶句로 되어있으며, 이 두 사람은 7首 공히 동일한 압운자를 쓰고 있다. 그리고 서거정의 「次日本僧送元鷲詩」와 이의무의 「次日本僧元鷲詩軸」는 각각 6수의 칠언절구로 되어 있으며, 6수 공히 동일한 압운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元鷲이 지니고 온 「杏林亭詩軸」은 몇 사람의 일본승려가 각각 1, 2수씩 杏林亭에 대한 題詠을, 「贈行元鷲詩卷」은 몇 명의 일본승려가 元鷲의 조선사행을 전별하기 위해 각각 1, 2수씩 送詩를 쓴 것임을 알 수 있다.⁶⁵⁾

『贈行元鷲詩卷』과 같은 성격, 즉 조선으로 파견되는 日本使僧을 위해 자국의 문인이 지은 送詩는 극히 드물다. 조선전기에 해당하는 室町時代의 日本漢文學을 망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五山文學全集』에도 조선과 관련된 송시나 찬화시문은 거의 없다. 景徐周麟의 『翰林蒔蘊集』에는 실려있는 「送文成藏主遊朝鮮國」이란 시는 극히 드문 그런 시 가운데 하나이다. 米谷均의 전해에 의하면, 景徐周麟이 송시를 써준 文成藏主는 「贈行元鷲詩卷」과 「杏林亭詩軸」을 지니고 와서 和章을 구한 元鷲이라고 한다.⁶⁶⁾ 景徐周麟은 五山の 禪僧으로 성종대에 日本에서 조선에 보낸 국서의 대부분을 찬술했고 ‘조선의 책은 글자가 커서 老眼에 편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⁶⁷⁾ 조선 책판의 글자 크기를 운운할 정도로 조선과의 광계에 깊숙히 개입되어 있었고 또 그만큼 그가 당시의 한일 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것이다.

杏林亭에 대한 題詠을 쓴 승려는 季弘大叔, 龜泉集證, 琴叔景趣, 月舟壽桂, 天隱龍澤, 蘭坡景臣 등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桂庵玄樹, 橫川景三, 景徐周麟, 雪嶺永璫, 仲芳, 瑞岩龍愷, 桃源瑞仙, 橫川景三 등은 杏林亭圖에 대한 題詠을 지었다. 이 가운데 앞서 말한 景徐周麟의 「送文成藏主遊朝鮮國」외에 橫川景三

65) 米谷均은 藤原重雄의 「陳外郎關係史料集」(『東京大學日本史學研究室紀要』2, 1998. 2)을 원용해 작성한 도표를 통해 15수의 陳外郎關聯題詠詩를 소개하면서, 이 가운데 7수가 杏林亭 題詠詩라고 밝히고 있다.

66) 米谷均; 앞의 논문.

67) 上村觀光編; 『五山文學全集』詩文部 第4輯(東京 民友社, 1915) p.407 「答牧松和尚」, “高麗之本 字大尤便于老眼也”

역시 元鷲의 조선사행을 증별하는 送詩를 썼으며, 이는 『補庵京華新集』(東京大學史料編纂所所藏寫眞帳)에 실려 전해지고 있다.⁶⁸⁾ 『贈行元鷲詩卷』이 전해지지 않아 景徐周麟의 「送文成藏主遊朝鮮國」가 『贈行元鷲詩卷』에 실린 景徐周麟의 送詩와 일치하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양자가 무관하지 않은 것임에는 틀림없다. 서거정은 景徐周麟의 送詩를 포함한 『贈行元鷲詩卷』의 차운하여 元鷲을 送詩를 지었던 것이다. 元鷲의 조선사행을 매개로 해서 한일문사간의 간접적인 시문창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徐居正은 元鷲이 한국할 때 그를 위해 60구로 된 장편의 5언시를 지었는데, 그 가운데 “上人이 사행을 수행해서, 태평한 세상에서 즐거이 관광하네”⁶⁹⁾라는 구절이 있다. 元鷲 역시 조선을 찾았던 대부분의 일본사신들이 그러했듯, 조선에 체류하는 동안 국내의 이곳저곳을 유람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元鷲은 五山을 대표하는 京都 南禪寺의 승려로 명에도 여행을 했다. 景徐周麟은 이 때에도 元鷲에게 주는 送詩의 서문에서 “일찍이 배를 얻어타고 鷄林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다시 이번 여행이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중국 산천풍물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즐기고 이를 시문으로 아름답게 다듬기 위해서일 터이니 가상하다 하겠다.”⁷⁰⁾고 썼다. 이 문장의 문맥으로 보아서는, 文成藏主는 조선 산천의 아름다움을 읊고 조선문인들과의 창화를 기록한 사행록을 남겼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은 그 현전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杏林亭은 의술에 뛰어난 陳員外 집안의 정자인 때문으로 『杏林亭詩軸』의 경우에는 徐居正과 李宜茂의 차운시 역시 의술과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있으나, 『贈行元鷲詩卷』은 元鷲의 조선사행을 증송하는 詩卷인 때문으로 이에 대한 차운시 역시 元鷲 개인에 대한 편면과 전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가 扶桑에서 뜨면 몇 번째 가지에서일까,
찾으려해도 길이 없고 바다는 가이 없네.
지금처럼 고승의 얼굴을 대할 수 있다면,

日出扶桑第幾枝
相尋無路海無涯
如今得見高僧面

68) 米谷均의 앞의 논문.

69) 徐居正: 『四佳集』 補遺1 面32.

70) 앞과 같은 책 p.172 「送龍山文成藏公藏主遊大明國序」, “嘗附海舶入鷄林 今又有此行 是無他 中華山川風物美 寓之於目 玩之於心 而欲潤色其文也 可尚矣”

道를 찾다 때로 돌아가 애써 시를 구하리.

訪道時還苦乞詩⁷¹⁾

東風 불자 버들가지 다 꺾어주며 송별하나니,
조각배 외롭게 떠가 객은 하늘가에 있네.
멀리 노닐매 얻은 바 많음을 아노니,
오직 비단 주머니에 천수의 시일 것이로다.

折盡東風楊柳枝
片帆孤掛客天涯
遠遊所得知多少
唯有錦囊千首詩⁷²⁾

『贈行元鷲詩卷』의 동일한 시에 서거정과 이의무가 차운한 것이다. 압운자인 枝 涯 詩는 그대로 썼지만, 扶桑과 折柳를 용사한 전반부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 이와 달리, 후반부는 압운자인 시에 맞춘 결과이기는 하겠지만 의미하는 바가 상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徐居正과 李宜茂에게 모두 元鷲이 애써 시를 구하는 詩僞으로 보였던 때문이리라.

시문창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산천유람에 대한 것도 빠지지 않고 있다. 이때에도 사형은 이국땅 문인과의 문학적 접촉은 물론이고, 명승지를 두루 유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일까.

滄海와 桑田이 몇 번 바뀌어도,
두 나라는 여전히 좋은 산천이로세.
먼길 떠나와 어렵사리 얻은 鷄林의 시구,
하늘 등편 가시더라도 함부로 옮기지진 마시길.

滄海桑田幾變遷
兩邦依舊好山川
打袍贏得鷄林句
莫向天東漫與傳⁷³⁾

사명받들고 서쪽나라에 와서 세월을 보내시네만,
아름다운 시구 지니고 산천을 두루 다니시게.
專對하는 재주 화미함도 아노니,
五斗의 명성이 도처에 전해지네.

奉使西遊歲月遷
閑將麗句遍山川
也知專對才華美
五斗聲名到處傳⁷⁴⁾

산천을 읊으면서도 서거정과 이의무 공히 창화 및 승경에 대한 재영과 연관짓고 있다. 앞의 시도 그러하거니와 생삼한 성어를 용사한 것은 아마도, 元鷲이 차운시를 구한 의도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국가의 위신을 고려하여 작시능력은 물론이고 지식도 최대한 현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71) 徐居正; 『四休集』 詩集 補遺1 面13 「次日本僧送元鷲詩」

72) 李宜茂; 『蓮軒雜稿』 卷2 面14 「次日本僧元鷲詩軸」

73) 徐居正의 앞의 책 같은 곳. 「次日本僧送元鷲詩」

74) 李宜茂의 앞의 책 같은 곳. 「次日本僧元鷲詩軸」

앞에 언급한 시들은 이를테면 元鷲이 구한 和章인 셈인데, 이들 시 외에 『四佳集』에는 「日本國員外郎陳祖田杏林亭詩卷」과 「送日本僧元鷲還國」가, 『蓮軒雜稿』에는 「送元鷲上人還日本國」가 실려 있다. 「日本國員外郎陳祖田杏林亭詩卷」이 元鷲이 요구한 序跋격으로 쓴 시라면, 나머지 2수는 送詩인 것이다. 『贈行元鷲詩卷』과 『杏林亭詩軸』라고 하는 日本文人の 시문에 대한 창화가 이루어진 것은 특기할 만하나, 贈送詩가 역시 양국간 문학적 교섭의 주된 흐름이었음을 알 수 있겠다.

IV. 結 論

조선전기는 조선후기 못지 않게 한일양국간의 문학적 접촉이 다양하고도 빈번하게 이루어진 시기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자료들이 대부분 산일되어 연구에 어려움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선 양국간의 시문창화의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상징적 사례들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조선전기에는 조선후기와 달리 양국의 사신들이 상호내왕했고, 또 양국문인간의 접촉도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시문창화의 주된 공간이 조선이었는데, 文溪正祐가 조선에 내빙하여 자신을 위한 송시를 부탁해서 이를 허락받게 된 것을 시작으로, 日本使僧들은 종종 예조에 청해서 送詩 또는 送序를 받아갔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들 시문은 『朝鮮王朝實錄』과 『東文選』, 그리고 한국쪽의 각종 문집 등에 그 일부가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이들 문헌의 도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끼리의 시문창화에 비해 국가를 대표하는 사신과의 시문창화는 국가의 위신이나 외교적 마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조선의 경우, 성종대에는 일본에 보내는 군관을 선발함에 있어서도 문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정도였다. 또 문장력을 문계 삼아 이미 결정된 通信使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日本使僧들은 사행 이외에 조선의 이름난 산천을 유람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이곤 했다. 文溪正祐의 경우에는 안마와 의복을 하사받아 금강산을 유람하기도 했다. 유람

하는 과정에서 양국문인간의 시문창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임은 물론이다.

通信使라는 이름으로는 최초로 일본에 파견된 바 있었던 羅興儒의 日本使行錄인 『中順堂集』은 이름만 전해지고는 있으나, 창화한 시문의 수로 보아서는 『日本行錄』 이상의 사행록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 건국초기에 파견되었던 朴惇之의 『朴判事日本行錄』 역시 당시의 활발했던 양국간 교류의 산물이다. 자세한 전후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때문에 박판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나, 본 연구에서는 몇가지 관련 사실을 근거로 朴判事が 朴惇之였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송희경의 『日本行錄』에 상응하는 文溪正祐의 이른바 ‘朝鮮行錄’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朝鮮王朝實錄』과 『東文選』 그리고 몇몇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근거로 그 내용의 대강을 밝혔다. ‘朝鮮行錄’이 전하지 않는 때문에 그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김해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의 여정과 금강산 유람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아울러 조선전기의 양국간 문학교섭사에서 文溪正祐의 행적과 ‘朝鮮行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밝혔다.

世宗代에 몇차례 조선에 파견되었던 日本使僧 梵齡과 그의 堂號에 대한 題詠인 『松泉幽處詩卷』과 陳祖田의 『杏林亭詩軸』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梵齡은 자신의 堂號의 편액은 물론 字號에 對한 贊, 堂號에 對한 贊과 詩, 사행시 지니고 온 山水圖에 대한 贊 등을 두루 요구해서 받아갈 정도로 조선의 문학에 경도된 인물이었다. 『朝鮮王朝實錄』등을 근거로 그의 행적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마지막으로 『贈行元鶯詩卷』과 『杏林亭詩軸』에 대해 살펴보았다. 양자 공히 조선에 파견된 使僧이 아닌 日本禪僧들이 지은 送詩와 題詠인데, 비록 이름만 전하는 詩軸이기는 하나 양국간 문학교섭사에서 적지않은 의미를 지닌다고 본 때문이었다. 이들 詩卷을 지니고 와서 화운과 서발을 청했던 元鶯에 대한 조선 조정의 대응을 통해 日本使僧에 대한 조선측의 시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전기의 한일양국문인간 시문창화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題辭詩는 물론

金安國과 弼中의 교유도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과제로 돌리기로 한다.

Abstract

A Study on Poetry-Writings-Songs of Literary Scholars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Early Chosun

Kim Sung-Jin

This study is mainly related with poetry-writings-songs which was communicated between the literary scholars of Chosun and envoy monks of Japan who was dispatched in many places, and seeks to find the contents and meanings of them. Considering the tendency of the literary world, this study includes the poetry-writings-songs of Chosun intellectuals who contacted the Japanese monks who visited Chosun in the early time of Chosun and poetry-writings-songs of Japanese envoy monks in Mooromachi era which is connected with *Chosun Tong Sin Sa*.

In the early time of Chosun, friendly envoy dispatch was made between two countries. Envoy dispatch from Japan to Chosun was mainstream although the opposite situation occasionally happened. The subject of dispatch included Japanese feudal government, rulers of Daemado, resident priests of Buddhist temples, and merchants. In the era of king Sejong, the number of envoy was over six thousands a year. Through frequent exchange, a number of poetry-writings-songs were formed between two countries. Because the envoy dispatch was usually made from Japan to Chosun, the major place of poetry-writings-songs was Han peninsula in this era. In case of Japan, lots of documents were lost due to Eungin's disturbance. Therefore this study is completed on the base of Korcan documents, and supplemented by Japanese remains.

That the literary capabilities of coveys were primarily considered in the

diplomatic aspects was general tendency. In the case of Chosun, king Sejong adopted dispatch soldiers, firstly considering the literary abilities. The conveys of Japan was generally monks and they had interest in the traveling of beautiful sites and literary friendship with literary scholars of Chosun. The covey documents collecting literary interchange between two countries were mainly lost, but the name and author of covey documents were handed down through many other documents. *Jung Sun Dang Jip* and *Park Pan Sa Il Bon Haeng Rok* are important examples. *Jung Sun Dang Jip* was written by Na, Hcung-yu who was dispatched to Japan as the name of envoy, and the number of contained poems was much more than *Park Pan Sa Il Bon Haeng Rok* which was written by Park, Soon-ji. These were the result of exchange between two countries.

This paper seeks to survey Moongye, Jeong-woo's *Chosun Haeng Rok* which is equivalent to Song, Hee-kyeng's *Il Bon Haeng Rok* on the base of *Chosun Wang Cho Sil Rok*, *Dong Moon Sun*, and other written documents. And I consider the meanings of *Song Chun Yoo Chu Si Kwon*, and *Haeng Rim Jeong Si Chook*. Several *Sa Haeng Rok* and other related documents are mainly examined to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osun era and Japan. But many of the *Sa Haeng Rok* have not discovered yet, so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inevitably. To perfectly understand the literary exchange between two countries, lots of *Sa Haeng Rok* which have not been handed down except their titles and authors should be excavated.